

더불어
민주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보도자료

위원장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 명지대 석좌교수)

배포일 : 2025.05.27.

배포 즉시 보도 가능

**“K-문화강국위원회,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
경청토론회 개최”**

- ▲ K-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 유홍준), 5월 26일(월) 오후 3시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서
경청토론회 개최
- ▲ ‘기록·공유·참여·확장’ 키워드 중삼… 디지털 아카이빙, 온라인 플랫폼, 아트페어
등 제안
- ▲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지역 생태계 강화 필요”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 ▲ 유홍준 위원장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위해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것”

K-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 유홍준)는 2025년 5월 26일(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경청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과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예술계 정책 과제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관장, 김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최장락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 등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 예술인 복지, 미술시장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으며, 유홍준

위원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분야별 현안과 대안이 공유됐다.

토론회에서는 ‘기록·공유·참여·확장’을 핵심 키워드로, 예술 생태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디지털 아카이빙, 온라인 플랫폼 강화, 참여형 아트페어, 기술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제안으로 논의됐다.

박물관·미술관 분야 토론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 종사자의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예술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공공 지원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발표자들은 민간 박물관의 공공성 확대, 고미술 시장 보호, 지역 미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미술품 조세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법인 제도 신설, 아트페어 기반 일자리 창출, 미술품 기부 세제 개편,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K-문화강국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민간 제안들을 향후 문화예술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경청토론회를 지속 개최해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

첨부. 현장사진 1매

